

宗 教 論

(계속)

朴 亨 龍

第二章 宗教의 心理的基礎

宗教는 靈의 事件이니만치 그 性質과 活動이 人間의 靈性에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宗教란 무엇이든 어떻게 工作하는 것이냐의 問題를 解答함에는 그 論議를 반드시 人間의 心靈과 關聯하여서 進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우리는 宗教라는 靈의 事件의 全內容과 過程에 對한 充分한 理解를 얻기爲하여 먼저 그 心理的 基礎를 考察하게 된다.

一、宗教의 普遍性

鬼神이나 어떤 種類의 高等한 權力을 믿는 宗教가 普遍的 現象이라는 것이 人類學者들이 一般的으로 同意한다. 넉커에 據한 것은 『나는 都市와 組織된 政府와 法律을 不有한 人民을 보았으나 社寺나 諸神을 不有한 民族을 보았을 없다』 하였다. 半世紀남아前에 웨일스(Wales)가 바루 말하기를 『超感覺의 權力의 信仰을 指示하는 迷信的 儀式이 없는 곳은 없다』 하였다. 보다 더 近年에 랠젤(Ratzel)의 同一한 判斷을 내었다. 『人類學은 宗教 없는 種族을 아직 못

한다. 오직 宗教的 觀念들이 發展된 程度에 差異가 있을 뿐이다』 라이를도 類似한 意見을 發表하였다. 『接觸할 수 있는 證據의 洪대한 積堆로부터 내가 能히 判斷할 수 있는 대로는 靈의 實有者들을 믿는 信念이 우리가 徹底의 親交하여본 모든 劣等種族들中에 남아남을 우리는 是 認치 아니할 수 없다』 (Tyler: "Primitive Culture" P. 384) 그 밖중 (Tiele: "Outlines of the History of the Ancient Religions" P. 6)의 말과같이 宗教的 信念의 『人生의 普遍的 現象이다』

標準을 세우는 일은 없을지라도 旅行家들이 接觸하는 種族들과의 親密한 交際를 얻지 못하여 充分한 考察을 行치 못하고 突然이 速斷한 結果로 前記의 誤傳이 生起한 것이다. 맥스, 볼너가 指摘한 바와같이 旅行家들은 人獸(野蠻)의 發見을 期待하여 그들의 觀念의 皮相의 印과 靈的 觀念에 對한 同情이 缺如함을 보고 그 幼稚한 心靈들의 錯綜한 思想들을 鮮明하기에 苦心하지 아니하며 又 或은 言語의 奴隸가 되어갈 이고(旅行家들이) 어떤 言論에 어떤 名辭들이 欠缺함을 보고서는 거처 對應하는 觀念들도

었다. 辯論한다. (Max Müller: "The origin and Growth of Religion", P. 83-93) 스프롤(Sproat)의 밴쿠버諸島(Vancouver Island)에서 經驗한바는 土着人들이 外國人을 信任하고 그들의生活에 가장 神聖한事物들을 맡겨 주기에 얼마나 遲緩함을 明示하였다. 그는 證據하기를 「旅行家가 野蠻人中에 多年間 참말 그들中의 一人으로 居生한後의야 그들의 精神的 又是 靈的狀態에關한 그의 意見의 價値를 갖게된다」(Scenes and Studies of Savage Life, P. 205)

宗敎의 普遍性은 卽時人類의 宗敎性의 固有的인을 示한다. 則 그렇나하면 모든人類에게 共通한現象은 熱이 發生하거나 어떤時期 어떤 地方의 特殊한 情狀에 依하여 創造되었다고 볼수없고 人類의本性에 關係를 갖는것으로 認定하게되는 때문이다. 레벨의 『나보기에는 宗敎는 人間精神의 先天의特性과 傾向이며 따라서 그 生理的 需要이다』라고 말한것은 宗敎의 普遍的인을 보여 주며 斷案한다. (Reville: "Native Religions of Mexico and Peru", P. 5)

以上은 宗敎의存在가 普遍的인을 考察하고 따라서 人類宗敎性의 固有的인을 斷定한것이 아니라 이考察과 斷定에 加勢하여주는 重要한事實이 있으나 그것은 곧 모든宗敎에 普遍的인 原動力과 普遍的인 經驗의樣式이 있다는것이다. (一) 缺乏의感의共通 宗敎마다 人과 高等

權力사이의 良好한 關係를 設立하려고 努力한다. 이關係를 設立하고 이關係를通하여 滿足을 얻으려는 衝動은 人間의 自己內의 缺乏을 感하는데서 온것이며 이 缺乏의感은 人性의 潛伏하여있다가 環境의刺戟을 기다려서 發動하는것이다. 이 缺乏의感은 此를 經驗하는主體에 不完全과不安 或은 不調和가있음과 主體가 그것들을 滿足의狀態로 變動하기를 追求하는데서 由來한것이다. 사람이 萬一 靈적으로 完全하거나 或은 自己의 欠點을 도모지 意識하지못하게 先天적으로 되어있었다면 宗敎生活의 나아갈 原動力은 어려날수 없을것이다. 環境遇에는 그는 自己를 高等權力에 連結하려고 努力하지아니할것은 그렇게할必要가 없거나 或은 그렇게 할必要를 感하지못하는 때문이다. 그런데 宗敎마다 人間과 高等權力사이의 良好한 關係를 設定하려고 努力하는것을보면 이缺乏의 感이라는 原動力이 모든宗敎에 普遍的인을 알수있으며 또이것이 人類의心靈에 固有的인을 알수있다. (二) 信念과 行習의類似 卽 모든宗敎의 信念과 行習에 廣汎한 類似가있다. 卽宗敎가 人間의經驗에 날아나는 樣式의 一般的一致가있다. 人間의 宗敎가 흔히 그環境에依하여 着色됨은 環境이 그에게 特殊한 需要를 形成하여주는 때문이다. 그러나 環境의無窮한 多樣多態에 不拘하고 모든 宗敎의觀念들과 風俗들을 貫通하는 廣汎한 類似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廣汎한 類似는 宗教의 背景에 宗教의 機關으로 動作하고 있는 人間의 心靈들의 相似때문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宗教와 宗教사이에 類似가 模倣이나 借用으로 인한 境遇도 없지아니할것이나 그보다 더 一般의 原因은 心靈사이의 類似인것이다. 人間이 自己의 宗教的 要求를 滿足시키려고 努力하는 方法이 相似함은 相似한 精神機構가 活動하고 있는 結果이다. 그런즉 여기서 우리는 여러 宗教의 信念과 行習에 달아난 宗教的 經驗의 樣式의 一般의 一致를 發見하는 同時에 그 樣式이 人類의 心靈에 同有的인 精神作用의 發現임을 알수 있다.

이만한 宗教現象의 觀察은 人類의 宗教性的의 確實함을 斷言하기에 人類에게 宗教的本能의 있다는 結論을 짓기에 充分한 勢力을 갖인것이다. 이는 이미 宗教의 存在가 普遍的인 眞實 아니라 또한 그 原動力인 缺乏의 感이 共通하여 그 經驗의 樣式인 諸信念과 行習에 一般의 一致가 있는 事實은 다 합하여 宗教란것이 人類의 精神構造의 固有한 作用임을 證明하는데 本이다. 이 斷言과 結論은 下文에서 人間의 心靈全體가 宗教意識에 關係를 갖고 있는 事實을 考察할때에 鞏固하며 질것이다.

二、宗教意識의 心理的 成分

宗教의 座所가 人間의 心靈에 있다는 大體의 觀念은 上文에서 이미 暗示되었거니와 心靈全體가 그 座所라는 것이 本章에서 究明하려는 要點이다. 宗教의 座所 따라서 그 活動의 心靈의 精神的 機能들의 어느하나에 制限되어

있느냐 或은 그 全數에 遍在하느냐의 問題가 論議할 價를 지니고 있음은 事實이다. 宗教란 人心의 모든 精神的 機能을 다 包含한다구 보는 것이 當然한 것마는 或時는 此 機能或時는 被機能을 가르켜서 特殊한 宗教의 活動을 하는 機能이라고 한 것은 宗教意識에 周到한 觀察이 없을 뿐 아니라 人心의 根本的 統一性을 不察하고 그 一要素가 全體와 分離하여 따로이 作用할수 있다고 生覺하는 誤解로 인한 것이다.

宗教의 座所. 따라서 그 活動을 心靈의 어떤 一部 精神的 機能에 들리는 見解들은 自古로 있었으나 近代에 특히 盛行하는 것이다. 或은 理智를 宗教의 座所라 하여 事物의 原因을 發見하려는 志願 即好奇心이 宗教에 中心의 活動을 행한다구 본다. 或은 感情을 宗教의 座所라 하여 恐怖心 或은 歸依의 感이 宗教의 中心의 活動을 행한다구 본다. 或은 意志를 宗教의 座所라 하여 自我의 獨立이나 保全을 爲한 衝動的의 宗教의 中心의 活動을 행한다구 본다 그러나 이는 다 宗教意識의 觀察과 心理的分析에 多大한 誤謬가 있는 結果뿐이다.

宗教意識을 周到히 觀察하여 보면 理智 感情意志의 作用이 모두 包含되는 것이오 決코 그 어느 하나만의 獨占이 아닌 것이다. 宗教란 理智로 思惟하는 것이며 感情으로 經驗되는 것이며 意志로 實行되는 것이다. 宗教生活에 드러가려는者 먼저 敎理과 信條의 理論에 從하여 宗教의

眞理를 承認하고 다음에 祈禱하여 懺悔하여 그眞理를 經驗하고 善事美德의 實行에 依하여 그眞理를 應用하는 것이다. 此를 어떤 近代流의 宗教哲學者들의 語法대로 順序를 變更하여 一般的意味의 宗教의 意識의 適當한言辭로서 陳述하면 感情은 神的對象과의 友交를 親切케 하며 따라서 宗教生活를 人格의 活力的의 因케하고 意志의 活動은 宗教의 性格과 性向을 形成하여 宗教生活의 實在性과 連續性을 授與하고 理智는 感情과 意志의 行動을 衝動하여 指導한다.

心理生活의 諸成分을 分析하여 보면 그 어느 하나가 獨立的으로 宗教意識에 工作할 수 없다는 것을 即時發見된다. 心理의 成分의 區分은 멀리 希臘古代思想家들에게로 도라간다. 플라톤가 그의 理想的國家論을 心靈의 『部分들』(=Parts)의 存在에 基礎한 것을 우리는 記憶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더 成熟한 洞察力을 갖이고 心靈生活의 作用들 或方面들을 云云하였는바 그것들은 오직 概念의 思考에서만 分離될 수 있는 것들이라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心理學의 產物인 心靈의 欲求的(=appetitive)方面과 理性的(Rational)欲求을 能力心理學의 稱하는 것) 作用과 知能的(Intellective) 作用의 區分이라고 할 만 한 것이었다. 感情, 思想, 意志의 三分法은 테렌스(Terens 1736—1807)에 依하여 最初로 提案되고 칸트의 承認으로 因하여 一般的採用을 받은 것이다. 宗教心理學도 이 三分法을 採

用하여 宗教意識의 分析에 應用하게 된다. 그러나 이 三分이란 機能(作用 Function)의 意味로 볼 것이요 心力(Faculty)의 意味로 볼 것이 아니라. 舊心理學者들이 互相 分離되어 있는 心力의 理論을 唱하였으나 그 心力心理學(能力心理學 Faculty Psychology)은 今日에 無勢하여 졌다. 우리가 經驗하고 아는 바는 知, 情, 意의 動作이오 知, 情, 意의 心力이란 想像의 虛構의 產物뿐이다. 心靈은 決코 部分들노 區分될 것이 아니다. 오직 그 機能을 思考上으로 區分할 뿐이다. 따라서 어떤 心理的過程에든지 모든 成分들이 모두 包含되어 있는 것이요 다만 臨在한 成分들의 程度에 強弱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突然的이오 壓倒的인 興奮에는 感情은 優勢를 갖이고 智力은 微弱한 것이며 抽象의 難題를 解決함에는 智力의 優勢로 感情의 成分은 微弱한 것이다. 所謂 美景의 被動的 享樂에도 感情과 함께 어떤 程度의 注意와 利己心의 伴行하여 意志의 臨在을 示하는 것이다. 心理의 經驗에 唯一成分만의 臨在하는 境遇는 全然없다. 心の 主觀的過程마다 精神構造全體의 作用을 包含한다. 그렇므로 宗教의 意識에 있어서도 人間の 心構의 構造全體의 作用이 包含되는 것이다.

人間の 宗教意識에 그 心理의 構造 全體의 作用이 包含되는事實을 分析하여 說明하면 이리하다. 世界 여러 宗教의 境遇에서 福利를爲한 欲望은 人性의 動物方面에

屬하는 것인바 欲望의 存在는 缺乏과 不完의 意識으로 더부러 또는 此等과 同行하는 感情的氣味로 더부러連結되어 있다. 그러나 欲望도 感情도 人間에게 宗教의 滿足을 授與하는바 對象을 創造하지 못한다. 宗教의 意識의 對象은 오직 信念이 授與하는 이오 信念도 本能的觀念보다 조금더 知力을 가진 것뿐이어서 어떤 認識의 動作이 그 對象을 選擇하여 心靈의 提示함을 要한다. 特히 人間을 獸類로 부러 區別한 優越한 智能의 作用이 아니라면 宗教는 出現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宗教意識에서 知情, 意의 精神的機能들이 如何緊密이 互相連結되어 互相纏捲됨으로 即時 알게 된다. 이 連結 纏捲의 關係에 對하여 좀더 詳細한 說明을 下文에 設法하리라.

世界 여러 宗教를 考察한 宗教學者들의 報導에 依하면 高等宗教에서보다 未開宗教에서는 感情의 區域이 狹少하여 主로 激情에게 驅使된 情緒의 反動과 恐怖, 敬畏, 喜悅의 發現에 局限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精神의 獨立性과 內面性을 얻는 程度에 있을 때에는 感情이 보다 더 큰 意味를 갖게 된다. 宗教에서 最深奧하고 最個人的인 것이 感情으로 表現되는지라 感情은 宗教意識의 中心에 最近하게 있다구 볼 수 있다. 敬虔한 感情의 氛圍氣속에서 그 自體가 宗教의 이 아닌 行爲와 事物도 宗教的價値를 갖이게 되거니와 이 氛圍氣를 떠나서는 禮拜

의 動作도 機械的이며 平凡的인 水準에 떨러진다. 神的對象과의 親密한 交涉도 感情의 工作에 依하여 可能하게 되나니 感情은 人間의 宗教를 人格의 이 되게 하며 活力的이 되게 한다. 그러나 感情이 그 激烈性과 確實性을 爲하여서는 意志의 傾向에 依賴하는바 多大하여 意志의 一定한 方向에의 活動이 있는 即 目的 있는 生活을 떠나서는 感情이 그 實際的價値를 잃는다. 感情은 願望과의 連絡에서 그 明確性을 얻는다. 意志가 實現코져 追求하는바 目的과의 關係를 通하여서만 感情의 善과 惡이 判定되는 것이며 觀念들과의 關係를 通하여서만 感情의 眞僞가 言明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感情이 아모리 宗教에 重要한地位를 占領하였을지라도 그것의 宗教的意義를 爲하여서는 다른 精神的成分들과의 關係에 依賴함을 우리는 再認識해야 될 것이다.

意志의 活動은 人間生活에 價値들의 臨在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即 사람을 驅하여 宗教에 導함에 重要한 役事를 하는바 福利를爲한 願望은 人性의 決意的方面의 表現이다. 人間이 動物이오 目的 있는 生活은 그의 宗教의 成長의 每階段에 反映되는 宗教的意識에 德性을 賦與한다. 速動하는 衝動과 漠然한 憧憬이 보다 더 廣大한 範圍와 보다 더 永久한 性質의 意識的欲望으로 變化하고 畢竟 理想과 大志로 發展하여 性格全部를 表現한다. 意志의 使用으로 宗教의 性向들과 傾向들이 形成

되어 宗敎生活에 實在性과 永持性을 寄與한다。感情의 단 痲痺的이어서 그強度가 昇降하며 變態하고 一種의 氣分이 他種의 氣分에게 急速의 換置된다。그러나 그 內面的性向或心情(Inner-disposition or heart)의 比較的 永續的이오 性格의 永久한 背景을 形成하는것인바 意志의 活動에依하여 漸次 形體를 잃는다。이같이 實際的我(Practical self)의 精力을通하여 永續的인 宗敎的性向이 建造되어 宗敎的情緒에 中心勢力을 賦與하고 또 方式로 보다더 確固한性質을 賦與한다。또 同時에 同一性과 實在性을 얻게된다。어떤 信念이든지 永久存續 하려면 利害關係의 興味를가지고 目的이있으며 人格의 生活에 關聯되어 重要な 役事를 하여야한다。靈的 生活의 事實들과 疎遠한 距離에있는 觀念들은 判然히 微弱하고 無力한것이다。우리는 우리의 意志를 通하여 우리의 信念들을 實際化하여 우리自身의 一部를 만든다。그런데 同時에 人間의理智方面에屬한 宗敎的觀念들은 感情의 方面과 意味를 供給하며 意志에 指導를行한다。人間의 宗敎生活이 迷志에 흐르지아니하고 正當 高潔 完全에 向進함에는 觀念들의 活動이 不可缺한것이다。世界 여러宗敎의 現象에 맞게하노라고 經驗論的 見地에서 宗敎를考察하는 者들은 智能을 感情처럼 宗敎的經驗의 中心에 近在한줄로는 보지않으나 오히려宗

敎的進歩에 가장 重要な 要因으로역인이다。觀念들은 人間이외 自己의 經驗을 一般化하여 宗敎를 種族或人 民의 共同所有로만드는 道具이라한다。宗敎的體系에 批評修正 發展을 激動하는것이 主로 環境의感化를 잘 받는 知能的要因이다。科學과 哲學으로부터 引出된 論의 激動을받는 健全한思想은 宗敎를 迷信化하며 腐敗하는 危險에서 救出하며 또 前進發展케하여 永續性과 確實性을 얻게한다。이는 宗敎生活이 情意方面에서 出發하는 여러 劣等宗敎의 境遇에서 智能이갖인 地位를 말한것이어나와 그것이 敎理信條의 承認으로부터 出發하는 高等宗敎의 境遇에는 智能의地位가 일파나 더 重要함을 看過할수없는것이다。무엇보다도 몬키 宗敎的 信念或 觀念들이 人間의 智能이訴하여 그認受를 받은後에야 感情에依한 經驗과 意志에依한 實行이 來到하는것이다。

心理的成分들의 各者가 宗敎意識에 臨在함에 同一程度의 強度로 臨在하지는않는다。그리하여 어떠한成分의 優勢는 그 宗敎生活의 典型을 決定한다。感情的成分이 優勢인때에는 그敬虔이 情緒的 或은 神秘的이요 思想이 優勢인때에는 그敬虔이 理智的이요 意志가 優勢인 때에는 그敬虔이 實際的이다。그리고 個人들에게서 發見되는 宗敎의 典型들은 한時代의 宗敎氣分과 生活에 廣汎하게 反映되어있음을 認識할수가있다。그러나 어느

한 典型的의 多的經驗이 人間에게 完全한生과 充分한滿
 足を 주지는 못한다. 모든 精神의能力의 內面的調和가 이
 方面으로 成就되기 不能하고 이調和가 未成한 間에는
 人間이 그宗教의信念과 行習을 反覆修正하야 더 完全
 한生과 더充分한 滿足을 追求하여 마치 아니한다.
 知識이 裁可키不能한 宗教的 感情과 單純의 機械的인
 行習과 情操或은 實際的價値를 갖지 못한 觀念들은 다
 早晚間 反動을 이르켜 再整理를 行케한다. 이렇게 宗
 教意識에 心的成分들이 同一程度로 臨在하지않음이 分
 明하지마는 그全數가 모도 關係를 갖고있음은 依然不
 變의 事實이다.

宗教意識에 모든 心理的要因이 臨在한事實은 이만하
 면 充分이 主張되출노안다. 이事實은 人類의 宗教性의
 確實함을 다시한번 雄辯적으로 證明한다. 宗教의 座所
 와 活動의 心靈의 어느 한가지의 機能에 있는境遇에
 도 宗教와 人性의 密接關係를 否定할수 없었지만 그모
 든 機能들을 全數包含하고 본즉 그關係의 根本的이요
 永久的임을 幾倍나 더 確實이 認定하지아니할수없다.

三、宗教의 心理的起原

何時何處에서 人類가 宗教의信念이 創始를 啓示하는
 行動을 하였느냐 하는問題는 解決의方途가 없다한다.
 이는 人類生活에 重要한 地位를갖인 어떤 事物의由來
 를 探求함에서든지 흔히 逢着하는 難關이다. 科學은事

物의 起原을 探求함에 進化의 觀念을갖고 事物의 最
 微少한 始初로 도라가기를 努力하나 그努力은 事實上
 思想의 抽象을 具體的능력들로 昇貴식하는데 不過하야
 그所謂 事物의 解釋은 神話化하고만다. 實로 아모 抽
 象의原理도 아모 單純한能力도 復雜한 人類生活의 起
 源이 되지아니하였고 아모 一直線의進化도 그 發展을
 指導하지 아니하였다. 법의 事物의 端初에 도라가 考
 察할時에는 모든것을 包含하였다가 後에 自體로부터 그
 것들을 神出하는 努力은 主로 心理的考察에 依하는것
 인바 亦是 우리는 알수없다는 謙遜한 自白으로 終結
 하고 오직 人類가 自初로 先天的宗教性을 所有한 事
 實을 發見하게된다.

宗教의 起原을 研究하는者 흔히 『個體의 生活史는 種
 族全體의 生活史의 縮少한 要約說이라』는 進化論의提
 案에 依하야 個人의 宗教의發展의 經路는 人類全體가
 踐踏한 經路라는 假設을 세워놓고 兒童心理의 進化狀
 態가 人類初期의 宗教發生을 可能케한 心理狀態라고斷
 定한다. 또는 現存 野蠻種族의 習慣과 精神狀態를 보
 아가지고 原始人中에 宗教發生을 可能케한 感情 衝動
 觀念이 어땀하였다는것을 推想하기도한다. 그리하야 宗
 教의 起原을 原始人의 心理作用에 探求하는 理論이輩
 出하게되었다. 그러나 此等理論의 背景에있는 前記兩條
 의 假說은 不合理한 推想에 基礎한것이어서 할부우 認

受하기 어렵다. (一)現代 幼兒의 心理的發展으로 原始 野蠻의 心理에 可能하였을바를 推定하는論法은 不當한 것이다. 何故오하면 一方에 現代幼兒의 心理的環境은 文明의 最低級에있는 個人의 成人의 心理的環境과 같지 아니하니 그環境에서 받는 精神的刺戟이 前者의 境遇의 것은 後者の 境遇의 것보다 많이 高等한 때문이다.

他方에 原始人을 幼兒로 論하는 容認할만한 喻辭는 이다. 그들이 兒童에 類似한바 많으나 嚴正하게 말하면 그들은 兒童은 아니다. 長성한 男女의 衝動과 趣味는 文化的 水準이 아모리 低卑하여도 兒童의 그것과는 不同한 것이다. 例하면 發展된 性生活에서 자라나오는 것은 感情과 動機는 長年人에게서 活動하되 兒童에게는 없다. 그러나 古代에 性生活로부터 引出한 觀念들과 象喻들이 人間의 宗教思想에 着色하였었다. 그러면 近代 兒童과 原始野蠻과의 間에 類似를 標準으로 하여 原始時代의 宗教의 起原을 探求함은 甚히 曖昧한 方法됨을 免치 못한다. (二)叙上の 批評과 同一한 批評이 現存野蠻種族들의 生活風俗을 研究하여 얻은 報導에 應用된 다. 文明人들은 現存野蠻種族들을 調査하여 얻은 知識을 가지고 自己들의 思想하는 習俗과 樣式에 依하여 遠過去에 自己들의 祖先들이 同一한 發展經路를 通過한 踪跡을 認定하려 한다. 그러나 現存野蠻種族이 우리에게 眞正으로 原始的인 것을 啓示한다는 結論에 突進함은 謹

慎을 要한다. 우리는 이런假定을 만드려 버릴 權利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進歩된 文化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原始的인 것을 보여 주는 것이 事實이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고으려 人類生活의 創始에 도라간다고 함은 甚히 다름陳述이다. 野蠻人의 風俗과 信念의 構造가 徐徐이 變動하되 오히려 變動함은 事實인지라 우리에게 알여진 가장 粗野한 社會들이라도 그背後에 發展의 過程이 있는 것이다. 어떤境遇에는 隔離와 不良한 外界狀態에 依하여 野蠻種族이 比較的 優勝한 文化程度로 부러 墮落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人類生活의 創始는 甚遠한 過去에 屬하여 今日的 最低卑한 種族이 (例如 濠洲土人) 原始狀態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推測함은 保證하기 어렵다. 그러면 宗教의 心理的起原을 探究함이 그方法에서 堅實치 못함을 宗教心學者는 是認치 않을 수 없다 (Galloway: "Philosophy of Religion", pp. 67-69)

(八九頁에서 속)

王부터平民까지 一火恐怖에 차이였고 사람과 짐승과 大麥과 麻花가 모두도 傷하니 損害도 莫甚하였었다.

〔三四節〕 「바다가 雨와 雷와 霹靂의 止함을 보고 如前처럼 罪하여」 惡人의 行動은 形便과 때를 따라 變하고 一定한 信仰과 義理의 標準이 없다. 故로 無神論者가 海上에서 風浪이 洶洶할 때는 神을 부르짖고 陸上에서 安全할 때는 無神論을 主唱한다 하였나 이라.